

# 나주 출신 독립운동가 이석성 시 日서 공개

나주학생만세 시위 주도 저항문인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日 잡지 소개  
“용아·영랑과 다른 작품세계 추구”  
1934년 소설 ‘제방공사’ 신동아 게재도



나주학생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독립운동가이자 저항문인인 이석성(본명 이창신 1941~1948·사진) 선생의 작품이 일본에 공개돼 화제다.

일본 근대문학 전공자인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에 따르면 김 교수는 최근 일본의 시 전문지 ‘시와 사상’ 3월호에 이석성 선생의 시 ‘우리들의 선구자 말라테스타를 애도한다’를 소개했다.

이석성 시인의 시를 처음 본 것은 지난해 8월 14일. 당시 이석성 시인의 아들 이명환(89) 소설가(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로부터 시를 받았다. ‘아버지가 쓰신 일본어 시가 나왔으니 일본의 독자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는 이명환 소설가의 말이 계기가 됐다. 당시 김 교수는 이석성의 존재도 소설가와의 관계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시를 읽는 순간 “뭔가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 견딜 수 없어” 흥분된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우리들의 선구자 말라테스타를 애도한다”는 이탈리아의 혁명가 말라테스타(1853~1932)가 세상을 떠난 뒤 1개월 후에 쓴 시다.

“태양은 폭군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동에서 서로 날아 새고 해가 진다/ 이런 분위기에 역사는 유전(流轉)하는 것인가// (중략) 지금 우리는 그걸 슬퍼하는 게 아니다/ 현대 자금/ 우리가 가장 용감한 투사를 잃을 줄이야...”

혁명이 말라테스타는 19세기 아나키즘 운동에 몰두했던 이탈리아 지식인이다. 시는 이석성 선생의 지향 세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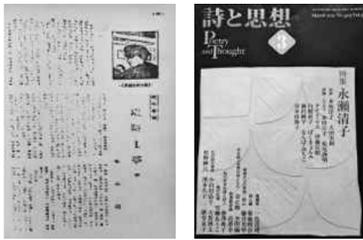
김 교수는 이석성 작가를 더 알기 위해 이명환 소

설가의 자택에서 1929년 이석성의 학생운동과 관련한 재판기록을 입수했다. 또한 문학박사이자 시인인 김선기 시문학파기념관 관장을 만나 시인으로서의 이석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김선기 박사에 따르면 이석성 시인은 30년대 한국 문학사에서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며, 우리 지역 출신 용아 박용철과 영랑 김윤식으로 대변되는 순수문학과는 결이 다른 작품세계를 추구했던 문인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석성 선생이 소설가로도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이후 소설 ‘제방공사’가 ‘신동아’ (1934년 10월~12월호)에 게재됐다는 것을 알고는 원본을 구하기 위해 전남대 도서관에 방문했다.

“원본을 확인하는 순간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 문장으로 당시의 순간을 표현했다. 그러나 ‘가장 장편’인 소설이 게재된 분량은 고작 1회(신동아 10월호) 5페이지와 제2회(11월호) 5페이지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1회 2절의 7~8행, 2회 3절 20행 정도가 복사(伏字)로 표기돼 있었다.



총독부 검열로 복사(伏字)된 소설 ‘제방공사’ (왼쪽)와 시가 실린 일본문예지 ‘시와 사상’

복사된 인쇄물에서 내용을 밝히지 않고 공란의 자리에 ‘○’ ‘×’와 같은 표를 찍는 것을 말한다. 12월호부터는 온통 복사투성이의 도입부 페이지에 삽화만 하나 실려 있을 뿐이었다.

신동아에 실릴 당시에는 “조선총독부가 탄압을 가해 여기저기 복사 처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제방공사’가 함일저항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신동아”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데이터 베이스한 문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문은 이미 폐기했다’는 답을 들었다.

장편 ‘제방공사’는 30년대 영산강 물난리로 제방이 무너진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일제가 수탈을 하기 위해 지역민들을 제방공사에 동원하자 주인공이 시위를 주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 문예지 ‘시와 사상’ 4월호와 5월호에는 이석성 선생의 ‘제방공사’를 토대로 ‘조선 남부의 저항작가 이석성을 읽는다-발굴의 의미를 담아’를 나누어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29년 11월 나주농업보습학교 2학년(15세)이었던 이석성은 나주학생만세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듬해 2월 독자적으로 만세시위를 추진한다 또 경찰에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졌다. 선생은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모처럼 수준높은 예술작품들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켜진 심신을 달래고 왔습니다. 어떻게 시골 미술관에서 피카소 전시를 개최할 생각을 했는지,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엇그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로화가 A씨가 상기된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 주말 지인과 함께 정읍시립미술관(명예관장 이흥재)에서 열리고 있는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졌다’(이하 피카소전)전을 찾은 그는 아직도 감동의 여운이 생생하다며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광주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전시가 열리지 않느냐”며 아쉬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순간, 나 역시 2년 전 정읍시립미술관에서의

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일대 사건’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피카소전이 ‘2019년의 쾌거’를 재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코로나19로 ‘전시장 밖’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예전과 달리 단체관람이 불가능한 데다 전시해설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사전예약을 한 방문객만 입장이 허용되는 등 관람조건도 까다롭다.

그럼에도 이번 전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정읍시의 ‘담대한’ 도전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술관이 코로나19로 전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달리 정읍시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예술을 통한 위로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품격 전시를 내놓은 것. 지방미술관으로서의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만치 않은 기획이

## ‘피카소가 정읍을 찾은 까닭은’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그 때도 봄의 길목에 들어선 3월 초였다. 다소 이른 시간인 오전 11시인데도 전시장은 수십여 명의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이종석·박수근·김환기·백남준·나혜석·오지호·이인성·이응노·전수전... 학창 시절 미술 교과서에서나 봤던 거장들의 작품을 ‘직관’해서일까. 전시장의 작품들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표정이 설렘이 가득했다.

당시 정읍시립미술관을 다녀간 방문객이라면 ‘격하게’ 공감하는 풍경이다. 3개월 동안 열린 ‘100년의 기다림-한국 근현대 명화전’은 지방의 작은 미술관을 전국구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하루 평균 50여 명이 불모였던 방문객이 이 기간에는 하루에 400명이 다녀가는 등 2015년 10월 개관 이후 가장 많은 인기(총 관람객 3만 2589명)를 세웠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광주, 서울, 부산 등 외지 방문객이었다. 정읍 인구가 11

지만 ‘문화’로 정읍시를 전국에 알리는 카드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정읍시는 이번 피카소전을 관광명소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피카소전 관람객들에게 정읍 내장사와 주변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올 초 광주시는 ‘찾아오고 싶은 광주, 머물고 싶은 광주’를 내건 예술여행 대표도시를 선포했다. 사실, 예술여행의 ‘메인’은 전시 콘텐츠다. 특정 시간에 가야만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달리 시간 제약 없이 많은 사람이 감상할 수 있어서다. 특히 문화애호가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힘은 명품전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역에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컬렉션이나 전시가 미흡하다. 예술여행 도시라는 타이틀이 공허하지 않는, 거장과의 추억을 이젠 광주에서도 즐기고 싶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4일 빛고을국악전수관서 목요일국악한마당



제644회 목요일국악한마당 ‘무진주 풍류’가 오는 4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춤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경칩을 맞아 열리는 이날 공연에는 다스름국악예술단(사진), 보리수예술단이 올라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김해진 명무의 ‘풍류남아’로 시작해 서영민이 ‘해금을 위한 민요연곡’을 들려주며 천희심 명

창은 ‘심청가’를 준비했다.

이은하 명창은 문화생 박애화와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입체창으로 공연하며, 황소희 춤꾼은 ‘교방 살풀이춤’을 선보인다. 끝으로 출연자 모두가 ‘남도민요’를 부르며 마무리한다.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선착순 60명 무료관람. 문의 062-652-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문화예술교육사 프로그램 운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시설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문화시설을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공모한다.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문화기반시설(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문화의 집, 문화원 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 무배치시설은 우선 선정한다. 단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종교, 친교 기관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선정된 문화시설은 1개월 이내에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선발해야 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70-5771/57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립발레단, 오늘 이이남스튜디오서 ‘생명을...’ 공연

발레와 미디어아트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이하 발레단)은 3일 오후 4시 이이남스튜디오(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생명을 통한 위로’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제1회 양림골목비엔날레(3일~5월9일) 개막을 기념하기 위한 무대이자 발레단의 ‘크로스오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는 발레와 다른 예술 장르를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광주 시민들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무대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의 작품을 배경으로 11명의 무용수가 발레 공연을 선보인다. 오프닝 무대에서는 7명의 발레리나가 선보이는 군무를 만날 수 있으며, 다채로운 파드도(2인무)는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이남스튜디오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연출로 공연은 실내에서 펼쳐지며, 관람객들은 실외에서 통유리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별도의 티켓구매 없이 관람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야외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립발레단은 올해 ‘시민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는 시립발레단을 미션으로 시민이 발레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